

## **PARK Wunggyu**

b. 1987, Suwon, Korea



PARK Wunggyu (b. 1987) has consistently presented works that explore the painterly possibilities of Oriental art by creating a symbolic order of positive and negative through subjects that evoke ambivalent emotions. He specialized in Oriental painting, captures images on canvas that evoke ambivalent characteristics, based on his artistic responses to classical Buddhist paintings from Korea and Japan. Particularly, he refers to the 'Hwayukbeop' (書六法, Six Principles of Painting) of Oriental painting, constituted by imitation, composition, form, texture, transformation, and application. Drawing on these principles, he incorporates into his artwork ambiguous emotions and sensations provoked by 'negativity', such as negative things, situations, and emotions. The series "Dummy" that began in 2015 initially depicted forms of monsters and gods without a specific subject. However, starting from 2019, it began to adopt realistic forms by borrowing from various insects like moths and cicadas, as well as from grotesque creatures. In the new 2023 work, a set of ten pieces titled Dummy No. 91~100 (2023) was introduced, showcasing the unique formative aspects seen from different parts of a cow's internal organs, magnifying and describing them in detail. Additionally, inspired by the Zen painting 'Sibu do' (十牛圖, Ten Ox-Herding Pictures) that characterizes human nature in 10 stages, the artist presented a work named The Ten Oxherding Pictures (2023), concentrating the process of eating, digesting, and excreting a cow in 10 frames. Another piece, Scar No.17 (2023), interpreted the ten types of a cow's internal organs using Chinese characters, was also displayed alongside the aforementioned works.

PARK Wunggyu was born in Seoul, Korea, in 1987. He received his BFA in Korean painting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in 2010, and MFA in Korean painting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in 2015. PARK Wunggyu began his active career as a resident artist at the Cheongju Art Studio from 2016.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3), Art Space Boan1(Seoul, Korea, 2022), Onground2 (Seoul, Korea, 2018), and Space Kneet (Seoul, Korea, 2017), Cheongju Art Studio (Cheongju, Korea, 2016), as well as group exhibitions held at SONGEUN (Seoul, Korea, 2023),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2023),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3),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2),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2021),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2021), Aram Art Museum (Goyang, Korea, 2019), and more.

## 박웅규

b. 1987, 수원,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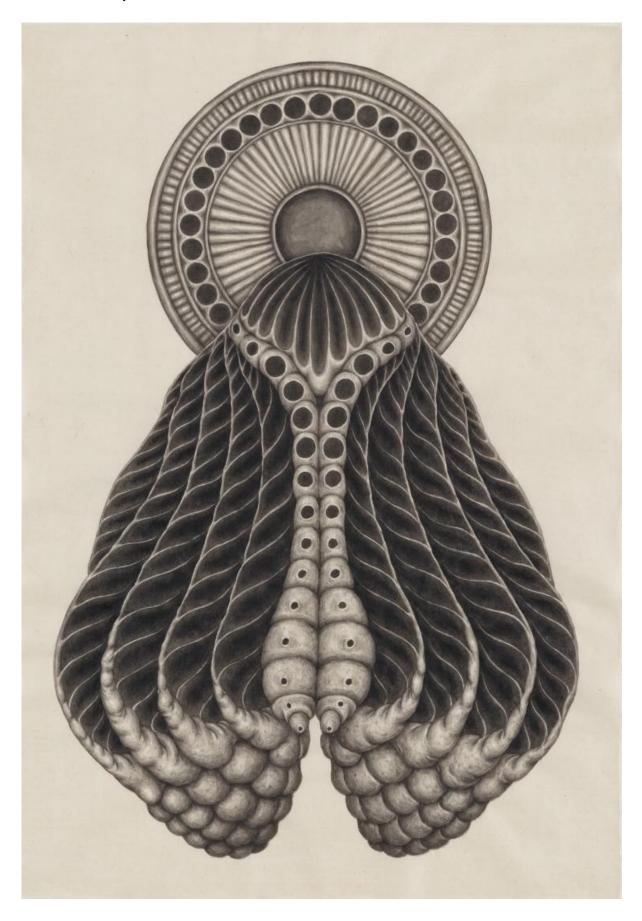


박웅규(b. 1987)는 양가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소재로 정-부정의 상징적인 조형 질서를 만들며 동양화의 회화적 가능성을 살펴보는 작업을 제시해왔다. 동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한국과 일본의 고전 불화(佛畵)에 대한 조형적 감응을 토대로 양가적 특성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화면에 담아내왔다. 특히 동양화의 화육법(畵六法)을 참고한 6가지 조형방식 (의태, 구도, 형태, 질감, 변용, 응용)을 참고 삼아, 부정한 것, 부정한 상황 그리고 부정한 감정 등 '부정성'으로부터 촉발한 모호한 감정과 감각을 그림의 형식에 개입시킨다. 2015년에 시작된〈더미(Dummy)〉연작은 특정한 대상 없이 괴물과 신의 형상을 그려오다가 2019년부터는 나방과 지네와 같은 여러 가지 벌레와 괴생명체 같은 구체적인 대상과 사실적인 형상을 빌려오기 시작한다. 2023년 신작에서는 소의 각 내장 부위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이점을 부분 확대하고 묘사한 작품〈더미 91~100 (Dummy No. 91~100)〉(2023) 10점을 선보였다. 그 외 인간의 본성을 10 단계로 구명하는 선화 (禪畫) 십우도(十牛圖)를 모티브로 하여 소를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의식(儀式)과 같은 과정을 10개의 화면에 집약한 작품 <십우도>(2023)를 비롯해, 소의 내장 10 개의 종류를 한자로 풀어서 쓴 작품 <흥 17>(2023) 등을 한 자리에서 선보였다.

박웅규는 1987년 수원에서 태어났다. 2010년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졸업 후 2015년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분야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박웅규는 2016년부터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입주 작가로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한국, 2023), 아트스페이스 보안1(서울, 한국, 2022), 온그라운드2(서울, 한국, 2018), 스페이스 니트(서울, 한국, 2017),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청주, 한국, 2016)에서 개인전을 개최헸다. 송은(서울, 한국, 2023), 부산현대미술관(부산, 한국, 2023), 일민미술관(서울, 한국, 2022),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서울, 한국, 2022), 단원미술관(안산, 한국, 2021), 아트선재센터(서울, 한국, 2021),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고양, 한국, 2019)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3 Ink on paper 92 x 64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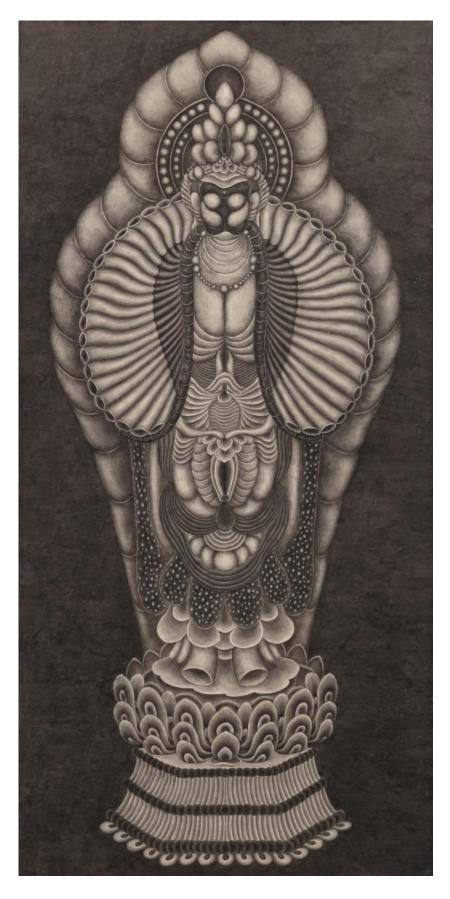
Dummy No.93 2023 Ink on paper 92 x 64 cm



Dummy No.96 2023 Ink on paper 92 x 64 cm



Dummy No.91 2022 Ink on paper 92 x 64 cm



Dummy No.85 2022 Ink on paper 180 x 87.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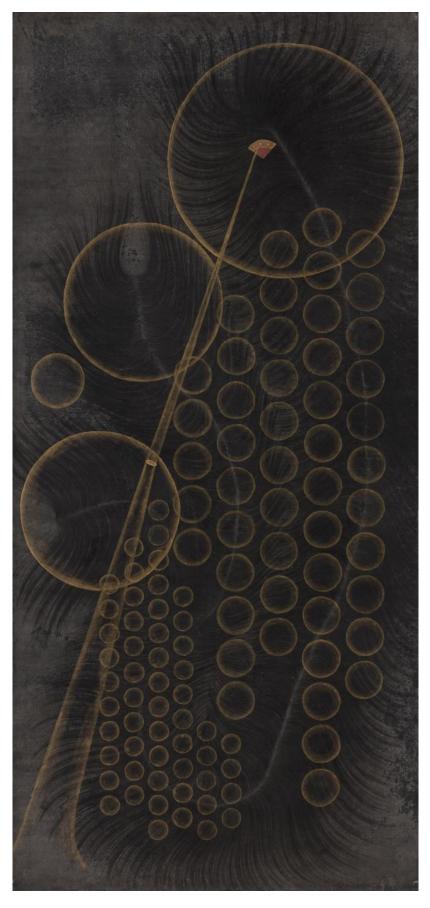
Sursputum No. 1 2023 Pigment on paper 31.5 x 36.5 cm



Scar No.17 2023 Pigment on paper 51.5 x 64.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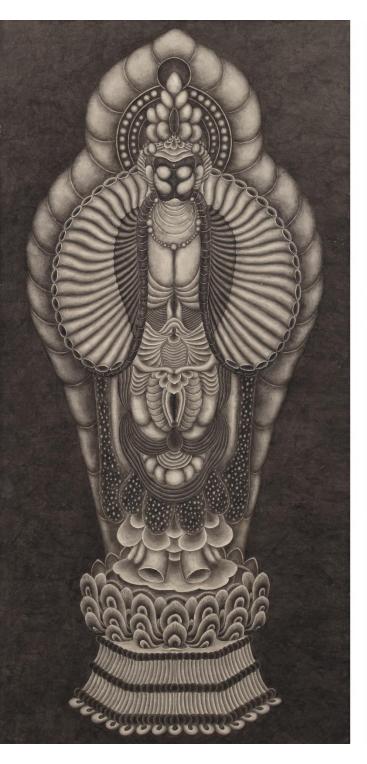


The Ten Oxherding Pictures 2023 Ink, Pigment on paper 27.5 cm



Dummy No.83 2022 Ink, pigment on paper 144 x 6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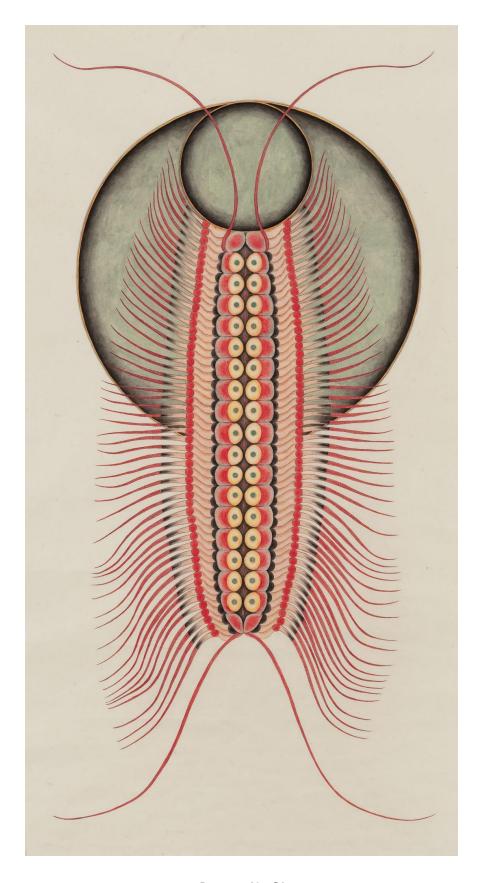




**Dummy No.85,** 2022, Ink on paper, 180 x 87.5 cm **Dummy No.86,** 2022, Pigment on paper, 180 x 87.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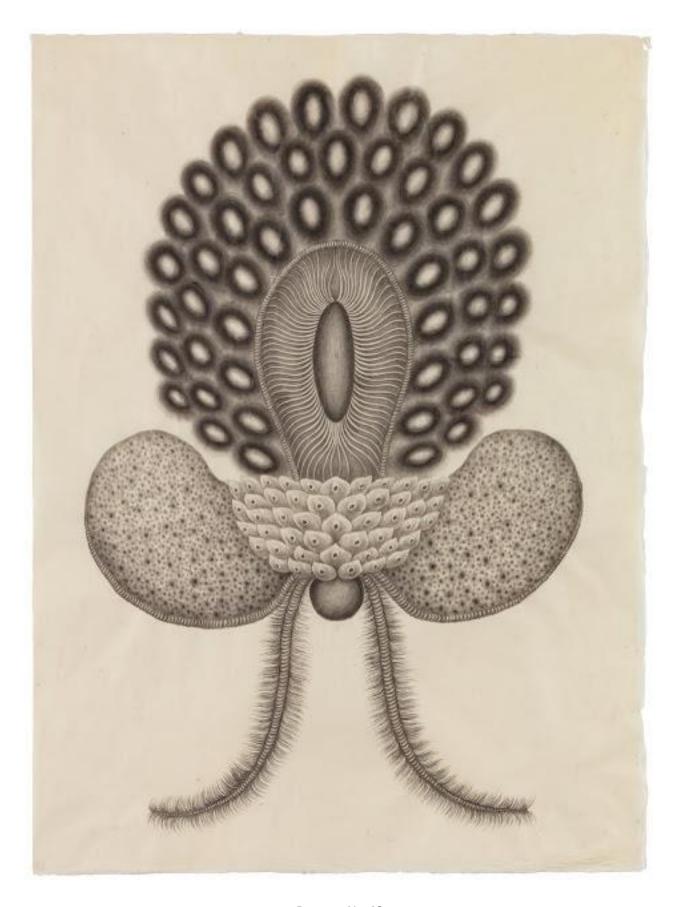




Dummy No.61 2021 Pigment on paper 200 x 103 cm



Dummy No.62 2021 Ink on paper 200 x 10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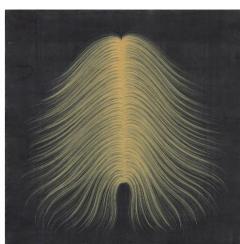
Dummy No.48 2020 Ink on paper 135 x 98.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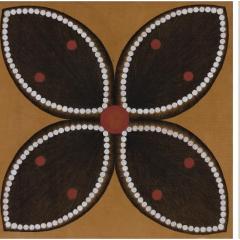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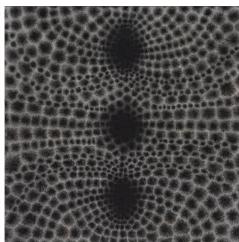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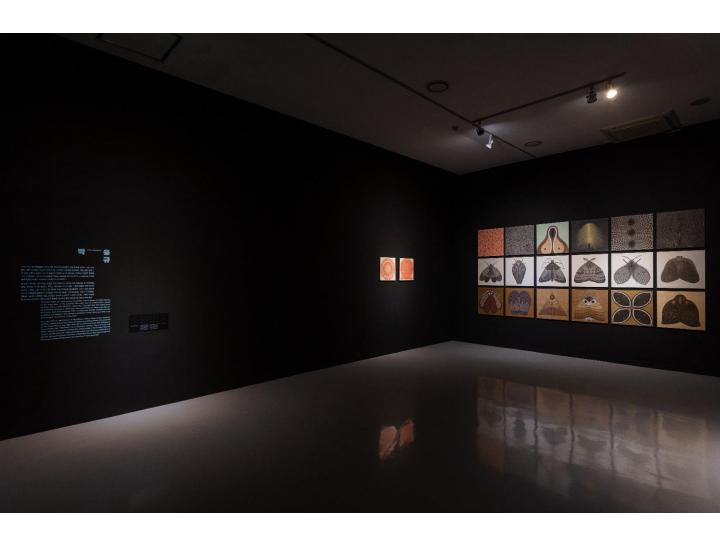


**Dummy No.69,** 2021, Pigment on hemp, 60 x 60 cm **Dummy No.63,** 2021, Ink on paper, 60 x 60 cm **Dummy No.75,** 2021, Pigment on paper, 60 x 6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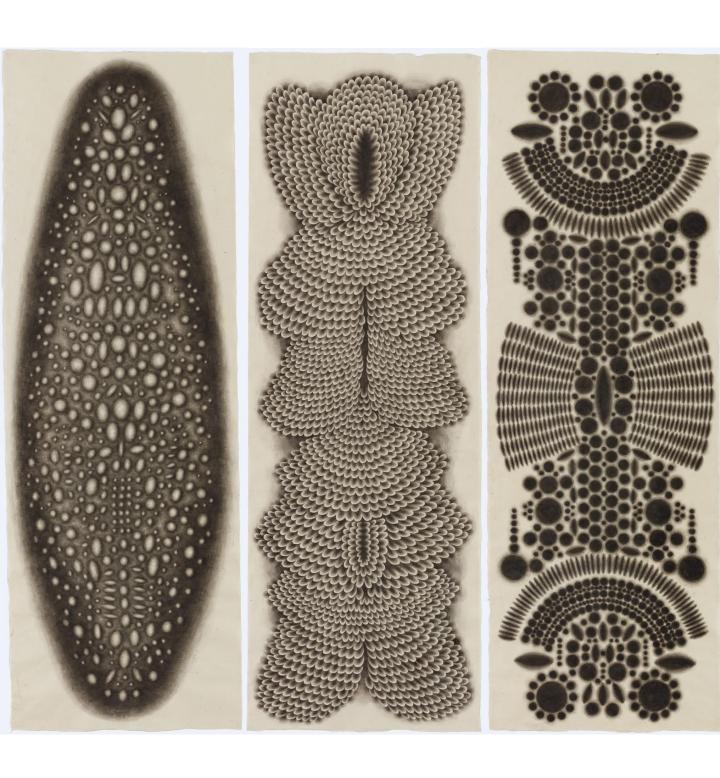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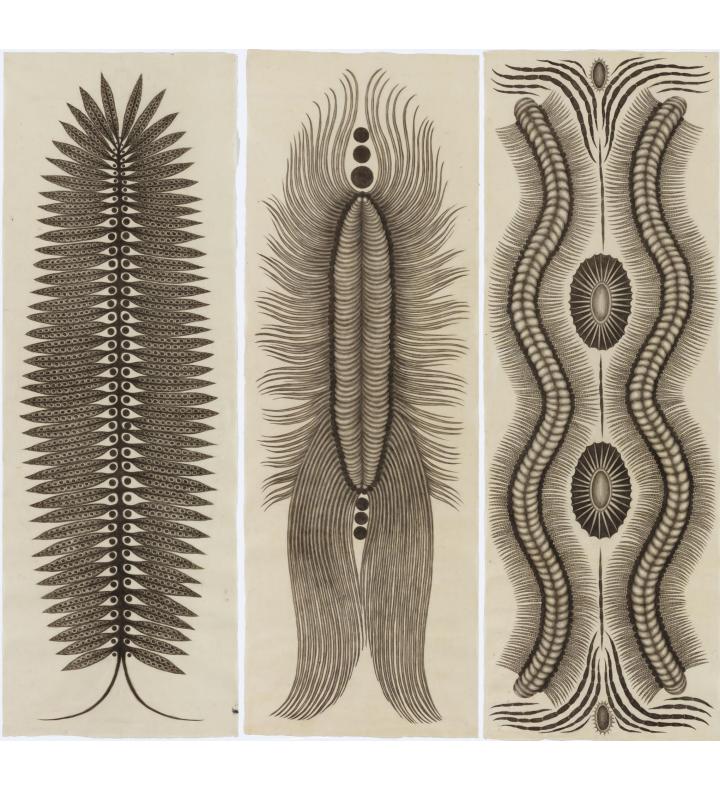








**Dummy No.39,** 2019, Ink on paper, 200 x 68 cm **Dummy No.40,** 2019, Ink on paper, 200 x 68 cm **Dummy No.41,** 2019, Ink on paper, 200 x 68 cm



**Dummy No.42,** 2019, Ink on paper, 200 x 68 cm **Dummy No.43,** 2019, Ink on paper, 200 x 68 cm **Dummy No.44,** 2019, Ink on paper, 200 x 6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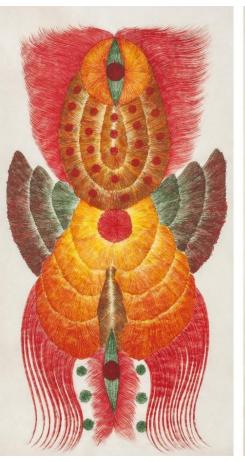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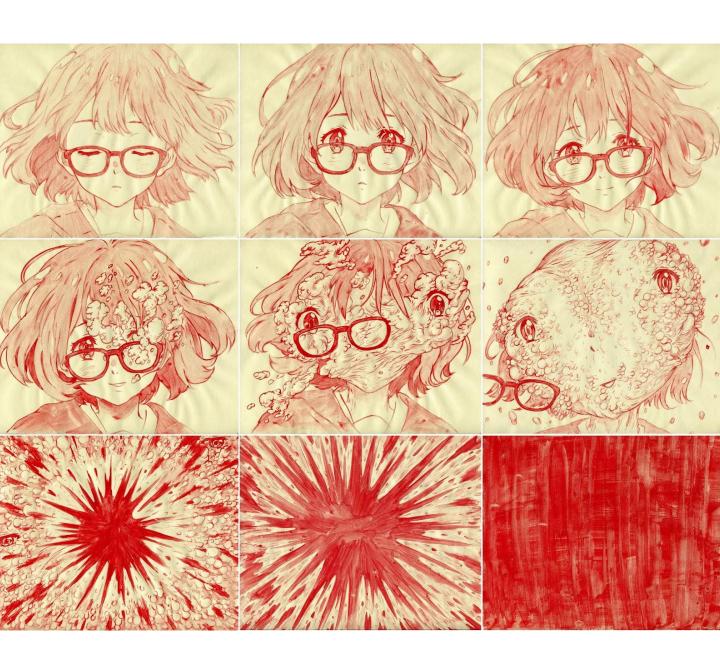


**Dummy No.30,** 2018, Ink on paper, 200 x 70 cm **Dummy No.35,** 2018, Ink on paper, 130 x 90 cm **Dummy No.29,** 2018, Ink on paper, 200 x 7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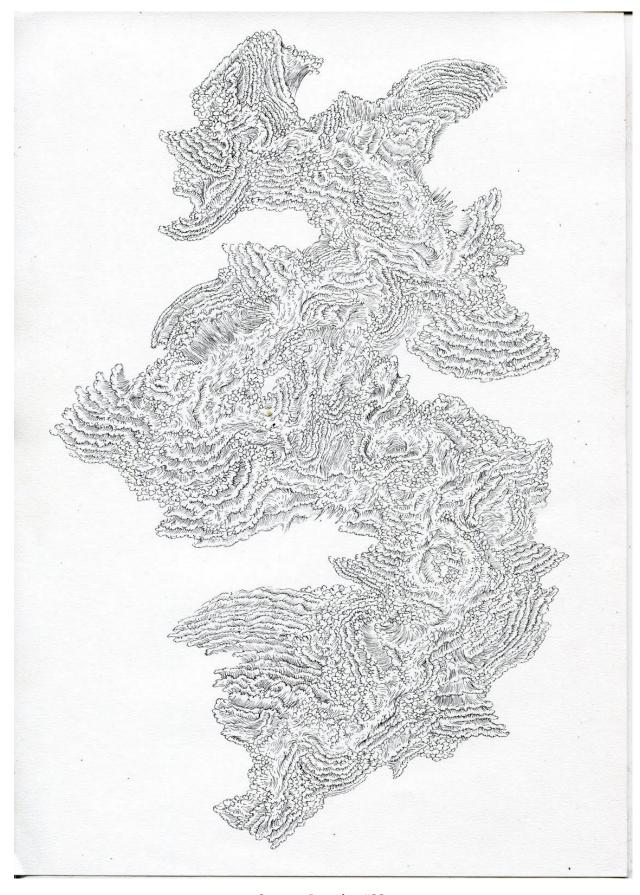


Nine piece drawing about the Mirai 2017 Pigment on paper Each 24 x 27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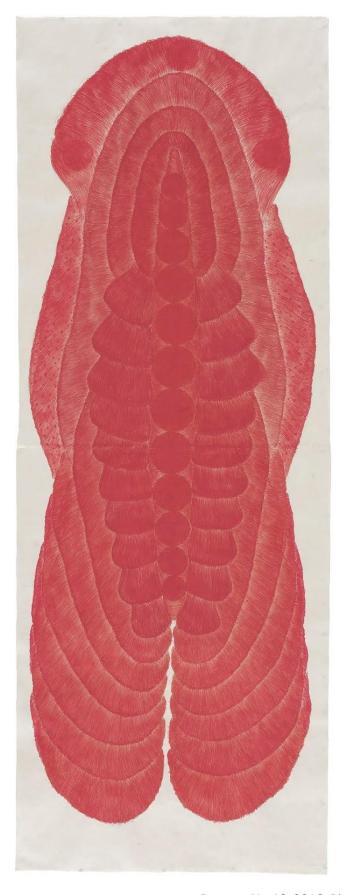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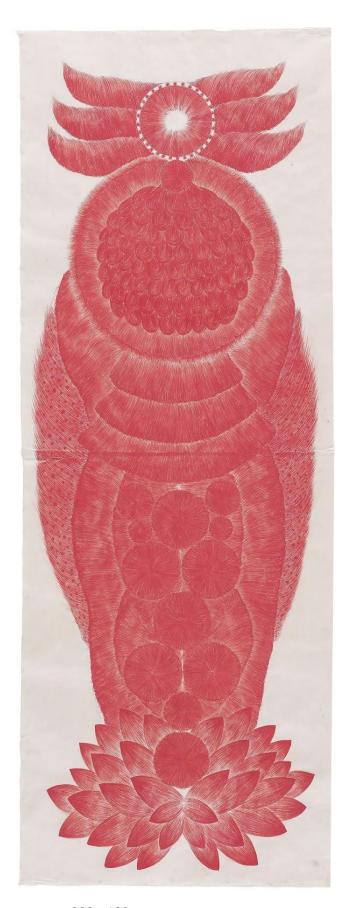


Sputum Drawing #24 2017 Acrylic, Pen on paper 31 x 22 cm



Sputum Drawing #22 2016 Pen on paper 29 x 21 cm





**Dummy No.13,** 2016, Pigment on paper, 280 x 100 cm **Dummy No.14,** 2016, Pigment on paper, 280 x 100 cm











Dummy No.5 ~ No.1 2015 Ink on paper 410 x 100 cm







## **PARK Wunggyu**

Born in 1986, Suwon, Korea

Lives and works in Yongin, Korea

#### **Education**

2015 MFA, Division of Korean painting, Graduate school,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Seoul, Korea

2010 BFA, Department of Korean painting, College of Fine Arts,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Seoul, Korea

#### **Solo Exhibitions**

2023	Intestine for Ritual,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22	Dummy Buddha, Artspace Boan1, Seoul, Korea
2018	Black Sun Onground? Spoul Korea

2018 Black Sun, Onground2, Seoul, Korea

2017 Worm and Saint, Space Kneet, Seoul, Korea

2016 Dummy Dogma, Chungju Art Studio, Chungju, Korea

#### **Group Exhibitions**

2023	Beings Swimming Backstroke Towards the Waterfall, Seoul Art Space Geumcheon PS333, Seoul, Ko	
	The 23rd SONGEUN Art Award, SONGEUN, Seoul, Korea	
	Singing Mother Earth,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Busan, Korea	
	Derby Match: Watchman and Spy, Museumhead, Seoul, Korea	

2022 Korean Traditional Painting In Alter-age,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NANJI ACCESS with PACK: Mbps, Project Gallery,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2021 Manifest Panorama,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Transposition, Art Sonje Center, Seoul, Korea

2019 The Art of Possible, Goyang Aramnuri, Aram Art Museum, Goyang, Korea Frequency of magic, Outsight, Seoul, Korea

2017 Walking future, Chungju Art Studio, Chungju, Korea

2016 Asia Art Highway, Chungju Art Studio, Chungju, Korea

Document-The traces of 10 years/The future of the 10 years, Chungju Art Studio, Chungju, Korea

#### Residencies

2016 Chungju Art Studio, Chungju, Korea

#### Award/Grants

2023	SONGEUN Art Award Shortlisted Artists
2022	SeMA Emerging Artists & Curators
2021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9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8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 **Collections**

Museum of Contemporary Art Busan, Korea

ARARIO MUSEUM, Korea

# 박웅규

1987년 수원 출생 용인에서 거주하며 작업

### 학력

2015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동양화분야 석사, 서울, 한국

2010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전공 학사, 서울, 한국

#### 개인전

2023 의례를 위한 창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2022귀불, 아트스페이스 보안1, 서울, 한국2018검은태양, 온그라운드2, 서울, 한국2017벌레와 성자, 스페이스 니트, 서울, 한국

2016 모조교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 단체전

2023 배영을 하며 폭포 쪽으로 다가가는 존재들, 금천예술공장 PS333, 서울, 한국

제23회 송은미술대상전, 서울, 한국

노래하는 땅, 부산현대미술관, 부산, 한국

더비매치: 감시자와 스파이, 뮤지엄헤드, 서울, 한국

2022 다시 그린 세계: 한국화의 단절과 연속,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2022 NANJI ACCESS with PACK: Mbps,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서울, 한국

2021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 : 현시적 전경, 단원미술관, 안산, 한국

트랜스포지션,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2019 경기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 : 가능성의 기술,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한국

Frequency of magic, 아웃사이트, 서울, 한국

2017 걷는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2016 아시아 아트 하이웨이,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도큐멘트 10년의 흔적, 10년의 미래,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한국

#### <u>레지던시</u>

2016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0기

#### <u>수상 및 지원</u>

2023 제23회 송은미술대상 본선

2022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전시지원 프로그램

2021 경기문화재단 지금예술창작지원 시각예술

2019 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창작지원사업 시각예술 유망작가

2018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지원 시각예술

#### 소장

부산현대미술관, 한국

아라리오뮤지엄, 한국

### 부정을 통해 도달하는 평정, 박웅규의 <십팔나방>

김남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아래는 홈페이지에 있는 박웅규 작가의 작업노트 일부다.

"나는 언제나 '<u>부정한 것, 부정한 상황, 부정한 감정</u>' 같은 것들에 기민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의 유희로 받아들인다. 나는 그 과정에서 때때로 종교의 것을 연상한다. 가령 죽은 벌레 시체의 생김새에서 현란한 불교 회화를 떠올리고, 창밖에 붙어있는 나방 무리에서 성당에 빼곡하게 들어선 성화를 떠올린다. 나는 가장 저급한 것에서 가장 신성한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이 그 자체로 종교적이며, 또 부정하다고 생각했다. 근래의 몇 년 동안 주로 벌레를 대상으로 작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내 작업에서 어떤 실체적 대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벌레이든, 아니면 어떤 성화이든 간에 더 이상 이 둘은 내게서 분리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 지이다. 따라서 작업에 드러나는 형상들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껍데기(Dummy)에 가깝다."

여기에는 박웅규 작가의 작업 전반을 이해하는 데 핵심 개념이 등장한다. '부정'이다. 우리가 사용 하는 '부정'이라는 단어는 여러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로 '부정'은 '긍정'의 반대말로, 무엇인가의 존재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negation'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는 그녀의 말을 부정(否定) 하였다"가 그 예이다. 이와 달리 '부정'은 '올바르지 못한'이라는 규범적 의미도 가지고있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에서 부정(不正) 행위가 발생했다" 혹은 "정치가의 부정 축재" 등의 표현에서 사용 되는데, 영어로는 'injustice'에 상응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부정(不淨)'은 축어적으로는 '깨끗하지 못한'을 의미하지만, 주술적 혹은 종교적 맥락에서는 '성(聖)스러움을 훼손시키는 것, 따라서 터부시되어야 할 것'을 지칭할 때 "부정한 물건", '부정탄다" 등도 사용된다. 한글로는 음가가 같지만 한자로는 구분되는 이 단어는 많은 경우 이 의미가 서로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그는 부정적인 사람이야"라는 말이, 그가 늘 무언가의 존재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인지, 그가 올바르지 못하게 처신/행위하는 사람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존중 받아야 할 것을 훼손하고 공격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말인지 구분하기쉽지 않다. 어쩌면 이 말에는 이 모든 함의가 다 들어 있을 것이다. 한자로는 서로 구별되는 이 '부정'의 함의는 사실상 내적으로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말로 '부정'이라고 번역되는 영어단어 'negative' 혹은 'negativit' 를 생각해봐도 그렇다.

내가 주목하는 건 박웅규 작가 스스로도 자신 작업의 중심 개념인 '부정'을 이렇게 다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인용한 작가노트 중 "나는 언제나 '부정한 것, 부정한 상황, 부정한 감정' 같은 것들에 기민하게 반응한다."는 문장을 보자. 여기 등장하는 '부정'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부정(不正), '깨끗하지 못한 것'이라는 부정(不淨), '어떤 존재의 불승인'이라는 부정(否定)의 의미가 함께 울리고 있다면, "나는 가장 저급한 것에서 가장 신성한 모습을 떠올린다는 것이 그 자체로 종교적이며, 또 부정하다고 생각했다."는 문장에서는 부정(不淨), 곧 '성(聖)스러움'을 훼손시키는 터부적인 것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된다. 연작에 대한 작가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Dummy> 연작은 이미지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스마트폰으로 접하게 되는 '부정함'에 관한 모든 이미지들을 사진첩에 저장해 둔다."

이 문장에 등장하는 '부정함' 역시 부정(不正), 부정(不淨), 부정(否定) 중 어느 하나로 축소되기 힘든 다의성을 갖는데, 흥미롭게도이 문장의 영역 "Starting with everyday encounters, all images of 'negative' are stored in the photo album"은 '부정함'을 'negative'로옮겼다. 역시 '부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작가의 아래 글은 어떤가?

"종교의 도상기호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도식들이 존재한다. 화면 안에서 형상들이 배치되는 방식이나, 그것을 장식하는 도식의 형태, 혹은 반복되는 수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기호-도상들의 표출 방법들. 이것들은 작업의 원전이 되는 부정함의 대상들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또한 부정한 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나름대로의 규율이다."

여기서 작가는 "부정함의 대상들"은 "the objects of negativity"로, "부정한 것"은 'injustice'로 번역하였는데, 여기서도 '부정'은 다의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단서들로부터 나는 박웅규 작가가 '부 정'에 대해 말할 때는 깨끗하지 못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나아가 무엇인가의 불승인이라는 '부 정'이라는 단어가 지닌 복합적 함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추론한다.

2012년, 박웅규 작가가 커리어 초반에 그렸던 <가래 드로잉> 연작이나 <사리 객담>작품에서는 '부정'의 여러 의미 중 '부정(不淨)', 곧 깨끗하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의 의미가 강하게 부각되어 있다. 작가는 가래나 편도결석 등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물질들'을 성화처럼 또 사리처럼 만들면서 '부정(不淨)'한 것을 그와 대립적인 성스러운 것과 연결시켰다. 박웅규 작가의 스타일이라 부를 만한 것이 자리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2015년 이후 <Dummy> 연작에서는 '부정'의 다른 의미가 전면에 등장한다. 독특하게 패턴화되어 있는 연작 그림들은 어떤 건 곤충이나 벌레 같기도, 어떤 건 블로스펠트가 찍은 식물 같기도, 다른 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미생물 같기도, 또 어떤 건 성모나 예수의 성상 같기도 하다. <가래 드로잉>이나 <사리 객담>과는 달리, 여기서는 그리는 대상들 자체가 '부정(不淨)'적인 것이 아니다. 이 작업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어떤 대상들을 볼 때에 그 안에서 '부정함'의 코드를 읽으려 애쓴다. 그리고 그에 부합한다면 나의 사진첩에 저장된다. 작업의 과정에서 그 이미지들을 직간접적으로 참고하게 된다. 작업에서 이 이미지들은 그대로 재현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서로 교배되거나 변형되기도 하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형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종교의 도상기호의 형식을 빌려온다는 것이다."

혐오스러운 벌레나 곤충뿐 아니라 일상 사물이나 식물, 성상 등의 대상들을 볼 때에 '부정함의 코드'를 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나는 여기 등장하는 '부정'은 어떤 존재나 타당성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정(否定)'이라고 생각한다. 혐오스러운 벌레건, 아름다운 식물이건, 혹은 성스러운 성상이건 그 대상에 부여되어 있던, 거의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적 반응으로까지 고착된 어떤 분위기의 존재나 타당성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벌레의 혐오스러움, 식물의 아름다움, 성상의 성스러움은 그들 자체에 본래적으로 내재한 어떤 속성이나 특질이 아니다. 그건 그 대상들과 관계하면서 우리에게 생겨난 감정, 가치, 규범들의 기묘한 뒤섞임의 산물이다. 이 점에서 그를 대상들의 '아우라'라 칭해도 좋겠다. 이런 대상들 안에서 "'부정함'의 코드를 읽는다"는 것은 이 대상들에게 부여된 아우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을 대한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이들은 작가에 의해 '서로 교배되거나 변형'되어 '전혀 다른 형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否定)'의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의 도상기호 형식'이다. 작가의 말대로 종교의 도상기호는 대상을 '반복되는 도식 형태'로, 곧 패턴화하여 표현한다.

주지하듯, 패턴화는 생명체의 생존에 핵심 능력 중의 하나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주변의 세계들을 어떤 식으로든 패턴화하여 그 질서를 파악하지 않으면, 생명체는 혼돈스럽고 카오스적 세계 속에서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패턴화는 어떤 대상의 모든 디테일에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정한 범주로 묶어 낼 수 있는 추상화 능력이다. 사냥에 나선 사자는 서로 다른 형태와 크기, 색깔을 가진 나무와 풀, 흙과 자갈 등의 세부 디테일에 다 주목해서는 풀숲에 숨은 토끼를 잡을 수 없다. 팔과 다리, 깃털 등 수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진 토끼를 그저 한 마리의 토끼라고 추상화해 낼 수 없다면 사냥은 불가능할 것이다. 패턴화한다는 것은 세계를 자신 나름대로 파악하고 포착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생명체는 무한하게 카오스적인 것 앞에서의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 대신 그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인간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물들의 디테일들을 추상화해 패턴과 도식을 포착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할 것이다. 박웅규 작가의 '더미' 연작에서 '부 정(否定)의 방법'은 이렇게 작동한다. 이 '더미' 연작 이후 박웅규 작가가 "내 작업에서 어떤 실체적 대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벌레이든, 아니면 어떤 성화이든 간에 더 이상 이 둘은 내게서 분리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 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이 '부정(否定)'이기 때문이다.

이번 생생화화 전에 출품한 <십팔나방>은 이 '부정(否定)'의 방법론이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난 프로젝트다. <십팔나방>은 총 18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 세 개의 이미지를 한 세트로 한 여섯 세트의 작업이다.

그리고 한 세트 내 세 작품은 형태나, 색채, 재료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다. 단원 미술관에 걸린 <십팔나방>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가장 아래쪽 작품들은 삼베에 안료로 그려졌고, 중간에 걸린 작품들은 종이에 먹으로, 가장 위쪽 그림들은 종이에 안료로 그려졌다. 작가의 설명에 의하면 이 세 종류의 그림은 "작업실에 출몰하는 벌레들을 3가지 방식"으로 그린 것이다. 이 세 방식을 작가는 "자세히 보고(중립),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려 애쓰고(긍정), 질감을 느끼려고 노력한다(부정)"로 제시한다. 이 세 가지 구분은 작가가 불교 교리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108가지 번뇌는 눈, 코, 혀, 귀, 피부 등 우리의 감각이 색, 향, 맛, 촉각 등을 대할 때 생겨나는 세 가지 느낌에서 출발한다. 감각에 '좋은 것(好)', '싫은 것(惡)', '싫지도 좋지도 않은 것(平)'<sup>1</sup>이 그것이다. 박웅규 작가는 이를 긍정, 부정, 중립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와 대상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 "자세히 보고(중립),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려 애쓰고(긍정), 질감을 느끼려고 노력(부정)하는 "으로 전유한다.

이런 기반에서 나온 프로젝트 <십팔나방>은 많은 미학적 질문들이 마치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퍼져나가게 한다. '싫은 것'의 '질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면 그 싫음이 '부정'될 수 있을까? 대상을 자세히 보는 것이 그를 '좋지도 싫지도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대상의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려 애쓴다면 '좋은 것'은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닐까? 불교적 수행의 목표는 감각에 좋거나 나쁜 것에 휘둘리지 않는 평정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런 평정 상태에 도달한다면 저녁 창문에 붙어있는 나방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일까? 등등.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벽에 걸린 18개의 그림을 보다 박웅규 작가는 우리 시대 거대한 이미지 순환 네트워크에 자리잡은 이미지 필터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 네트워크를 떠도는 모든 부정(不正)하고 부정(不淨)한 이미지들을 부정(否定)해 우리를 매료하는 독특한 이미지로 변형시켜 내놓는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미지 필터로서의 평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단원 미술관 전시장에는 고풍스러운 삼베 위에 "흉측한 외모로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여신" '흑암천'을 그린 <자매>가 건너편 벽에 걸린 두 점의 붉은 <흉>을 명상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외모를 흉측하게 만든 피부의 흉들을 담담히 마주하는 평정심의 상태. 이것이 부정의 이미지 필터로서의 작가의 모델일지도 모르겠다.

1) "108 번뇌의 뜻", 불교신문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904

### A state of composure reached through bu-jeong. 18 moth by Park Wung Gyu

KIM NamSee (Professor at Ewha Womans University)

Below is a part of the artist's note on his homepage.

"I always react quickly things such as 'something negative (bu-jeong), a misfortune situation (bu-jeong's situation), dishonest feeling (bu-jeong's feeling)". And the process of solving it is taken as an amusement. In the process, I sometimes recall religious things. For example, an appearance of a dead insect reminds me of a dazzling Buddhist painting, and a group of moths sticking on the window reminds me of holly pictures that are presented fully in the church. I thought that it was religious and improper (bu-jeong) to recall the most sacred appearance from the lowest. In recent years, I have been working mainly as considering insects as objects. But in my work, an objects as a substance is not that important. Even if it is an insect or a holly painting, these two are no longer differentiated to me. The more important thing is what attitude I look at it with and how I distinguish it. Therefore, the shapes revealed in the work are close to a Dummy that performs similar functions." (The artist's homepage)

A key concept appears in here in understanding Park Wung Gyu's overall works. It is 'bu-jeong'. The word 'bu-jeong' that we use has several meanings. At first, 'bu-jeong (否定)' is the opposite word of 'positive' and it is used as a meaning of 'negation' which means not acknowledging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something. The example is that "he did not acknowledge her word". In addition to that, 'bu-jeong (不正)' has a normative meaning of 'impropriety'. For example, it is used in expressions such as "an illegal action occurred in the CSAT exam." or "an illicit accumulated wealth by a politician". It will correspond to 'injustice' in English. In addition to that, 'bu-jeong (不净)' means 'not - clear' in abbreviation. But in the shamanistic and religious contexts, it is used to indicate the thing that refers to "something that damages sacredness and should be tabooed". And it is also used like 'an unfortunate object' and 'to be cursed with misfortune'. This word, which has the same pronunciation in Korean but is distinguished in Chinese Characters, is used without strictly distinguishing their meaning one another. For example, the phrase "he is a 'bu-jeong' person." is not easy to be distinguished such as whether he is always a person who does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something, whether he is a person who behaves incorrectly, or whether he is a person who has a tendency to undermine and attack a thing that should be respected. Probably, this phase might include all these implica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bu-jeong' that are distinguished one another in Chinese characters are actually connected internally. The English words, 'negative' or 'negativity', that are translated into 'bu-jeong' in Korean are believed to be the same cases.

What I am focusing on is the fact that the artist Park Wung Gyu himself uses 'bu-jeong' that is the main concept of his work in these polysemous meaning. In the artist' note that I mentioned before, let's have a look at the sentence like "I always react quickly things such as 'something negative (bu-jeong), a misfortune situation (bu-jeong's situation), dishonest feeling (bu-jeong's feeling)'".

In 'bu-jeong' that appears in here, there are meanings like the meaning of 'improper (不正)', 'unclean (不淨)', and 'disapproval (否定)'. And there is a sentence like "I thought that it was religious and improper (bu-jeong) to recall the most sacred appearance from the lowest." In this sentence, in terms of bu-jeong (不淨), the meaning of taboo that damages sacredness is strongly emphasized. This sentence appears in the artist's note for *Dummy* series. It is as follows.

"Dummy series begins with collecting images. Starting with everyday encounters, all images of 'bu-jeong' are stored in the photo album." (The artist's homepage)

The 'bu-jeong' in this sentence also has polysemy, which is hard to reduce to any one of bu-jeong (不正: dishonesty), bu-jeong (不淨: unclean), bu-jeong (否定: negative). And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is sentence is "Starting with everyday encounters, all images of 'negative' are stored in the photo album." Bu-jeong in here was translated to 'negative'. How about the following article in which the word 'bu-jeong' appears also?

"A icon sign of religion has schemas that repeat consistently. A way that shapes are arranged in the screen, or a form of schemas that decorate it, or a method of presenting signs – icons that appear in relation to a repeated number. These things function in a way that captures 'the objects of bu-jeong (negativity)' that is the origin of the work. And it is also a discipline in its own way to control my attitude toward 'bu-jeong (injustice)'. (The artist's homepage)

In here, the artist translated "the objects of bu-jeong" into "the objects of negativity" and "bu-jeong" into "injustice". Even here, 'bu-jeong' has multiple meaning. From these clues, I infer that he considers multiple implications of the word 'bu-jeong' such as something unclean, something unjust, and even disapproval of something when Park Wung Gyu talks about 'bu-jeong'.

In 2012, in *Sputum drawing* series or *Sputum crystal* painted by Park Wung Gyu at the beginning of his career, bu-jeong (不淨) among the various meaning,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something unclean' and 'dirty' is strongly emphasized. The artist connected 'something unclean (不淨)' with 'a sacred thing opposed to it' by making a sarira or a holly painting with 'this dirty substance' coming from human body such as phlegm or tonsil stones. In the series of *Dummy* since 2015, whi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n establishment of what could be called Park Wung Gyu's style, another meaning of 'bu-jeong' appears in the front. The uniquely patterned paintings of *Dummy* series look like insects, bugs. Some look like plants taken by Blossfeldt and microorganisms examined through a microscope, or look like the images of the Holly Mother or Jesus. Unlike *Sputum drawing* or *Sputum crystal*, the objects drawn here are not 'bu-jeong (not clean)'. Regarding this work, the artist says as follows.

"When I see a certain object, I try to read the code of 'bu-jeong'. And it conforms to this, it is stored in my photo album. In the process of work, the images are referred to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work, these images are represented as they are. These are hybridized or transformed, and sometimes they become completely different shapes in the process. But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t borrows the form of an icon sign of religion in the way of embodying the image." (The artist's homepage)

What does it mean to read the code of 'bu-jeong' when looking at objects such as daily objects, plants, and images as well as disgusting bugs and insects? I think that 'bu-jeong' appearing here is 'negation (否定)' which means disapproval of any existence or validity. Whether it is a disgusting bug, a beautiful plant, or a sacred icon or not, the existence or validity of certain atmosphere which has been endowed to the object and almost fixed in even our natural emotions response is not approved. The disgust of insects, the beauty of plants, and the sacredness of icons are not any attributes or characteristics inherent in themselves increately. It is the product of a strange mixture of emotions, values, and norms that have arisen in relation to those objects. In this point, it might be good to be referred to as the 'aura' of objects. Within these objects, "reading the code of 'bu-jeong'" means that the aura endowed to these objects is not approved and these are treated without being swayed by it. Therefore, these can be 'completely different shapes' that are 'hybridized and transformed' by the artist. An important role in the work of ' bu-jeong (否定)' is 'a form of icon sign of religion'. As the artist said, the icon sign presents the object as 'a form of repeated schema', in other words, it presents as patterning.

As well known, patterning is one of the key ability for life's survival. If the world around the various events that occur in the environment is not pattered in some way to grasp the order, it would be difficult for living things to survive in the confused and chaotic world. Patterning is not the ability to pay attention to every detail of an object precisely, but it is the ability to be able to abstract them into a certain category. A lion who goes hunting cannot catch a rabbit hidden in grass by focusing on details such as trees, grass, and soil that has different shapes, sizes, and colors one another. Hunting would be impossible if the rabbit, which has numerous parts such as arms, legs, and feathers, could not be abstracted as just one rabbit. Patterning is to understand and grasp the world in one's own way and endow it with order. And through it, living things become to learn how to respond and cope with it instead of vague fear and anxiety in front of chaotic things infinitely. Human beings are also the same. Therefore, if we could not abstract details of all objects surrounding us to capture patterns and schemas, we would not be able to do anything. In *Dummy* series by Park Wung Gyu, 'a methodology of bu-jeong (否定)' works like this. After this *Dummy* series, Park Wung Gyu said as follows. "Some substantial objects in my work are not that important. Whether it is a bug or any sacred image, these two are not any longer differentiated to me. What is more important is what attitude I look at it with and how I distinguish it." The reason of saying like this is because the issue here is 'bu-jeong (否定)'.

18 moth presented in Breath of Fresh Air exhibition is a project in which the methodology of 'bu-jeong(否定)' is revealed most explicitly. 18 moth consists of 18 works in total. This is six sets of works in which one set consists of three images. And three works in one set are also different in form, color, and material. Speaking of 18 moth presenting in The Danwon Art Museum, the low parts of the works were painted with pigments on hemp, the middle parts of the works were painted with Chinese ink on paper, and the top parts of works were painted with pigments on paper. According to the artist explanation, these three types of painting were painted in "three ways of insects appearing in the studio". These three methods by the artist are presented as "to look closely (neutral), to try to understand the shape and structure (positive), and to try to feel the texture (negative)". These three distinctions are taken from Buddhist doctrine by the artist.

According to the artist, 108 defilements of human being originate from three feelings that arise when our senses such as eyes, nose, tongue, ears, and skin treat color, smell, taste, and touch. There are 'a like (好)', 'a dislike (惡)', and 'neither a like nor a dislike (平)' to senses. (The meaning of '108 defilements' was referred to Buddhist newspaper: http://www.ibulgyo.com) The artist Park Wung Gyu takes this as the concept of positivity, negativity, and neutrality and he appropriates as "to look closely (neutral), to try to understand the shape and structure (positive), and to try to feel the texture (negative)" which are three ways to express objects.

The project 18 moth based on this allows many aesthetic questions to spread out like ink dropped into the water. Can the dislike be 'disapproved' if we 'try to feel' the texture of 'dislike'? Can a close look at an object make it 'neither like nor dislike'? If we try to understand the shape and structure of the object, wouldn't 'a good thing' be a good thing anymore? The goal of Buddhist practice is to reach a state of composure that is not swayed by good things or bad things for senses. What would the moths attached to the window in the evening look like to us if we reached such a state of composure? And so on.

Looking at 18 pictures on the wall while questioning these things, I thought this artist Park Wung Gyu is like an image filter located in a huge image circulation network of our times. He disapproves (否定) all images that are dishonest (不正) and unclean (不淨) floating in the network. Therefore, he transforms them into a unique image that fascinates us and he presents it. At the same time, he tries to maintain the state of composure as an image filter himself. In the exhibition of the Danwon Art Museum, *Sisters* in which Heukamcheon (黑闇天) was painted on antique hemp, who was 'the goodness who brings misfortune to people with her hideous appearance' were meditatively looking at *Scar* which was red and consisted of two works, hanging on the other side of wall. The state of composure that is like calmly facing scars on skin that make one's appearance ugly. This might be the artist's model as a negative image filter.